송년 기획 | 2018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

2018년이 저물어 간다. 올해는 유독 스포츠 행사가 많은 한해였다. 평창동 무리하면서 팬들에게 때론 감동을 선사하고, 때론 아쉬움의 탄식을 자아나게 계올림픽, 러시아월드컵, 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이벤트가 했던 순간들을 돌아봤다. 2018년 한국스포츠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올 한 줄을 이었다.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. 스포츠동아는 한 해를 마

해를 마무리한다.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@donga.com

전북 V6·SK V4·AG 2위…환희와 영광의 순간들



대한민국 스포츠의 2018년은 각종 굵직한 이벤트로 가득했다. 그 속에서 전해진 소식들 또한 매우 풍성했다. 💵 팀 통산 6번째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북 현대. 🛭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의 주인공이 된 SK 와이번스. 🐧 러시아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독일을 꺾은 축구국

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

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평창동계올림 픽이 열렸다.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을 비롯해 강릉. 정선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이벤트에는 동계올림 픽 사상 최다인 92개국 2920명의 선 수가 참가했다. 한국은 금메달 5개. 은메달 8개,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면 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인 종합 7위 를 차지했다.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 던 건 남북한 선수단 개회식 동시 입 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이 함께하면서 인류화 합과 평화의 정신을 실천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는 점이다.

2 활발해진 남북 스포츠 교류

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스포츠 교류 는 더욱 활발해졌다. 8월 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 단 공동입장과 함께 여자농구. 카누 (용선),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 팀이 구성됐다. 카누의 용선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이 나왔다. 또 탁 구에서는 5월 스웨덴 세계선수권대 회와 7월 코리아오픈, 11월 오스트 리아오픈에서도 연이어 남북이 단 일팀을 꾸렸다. 유도세계선수권대 회 단일팀 출전은 물론이고 통일농 구대회 개최. 세계태권도연맹(WT) 소속 한국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방 문 공연 등도 이뤄졌다.

图 AG 숲 축구·야구 희비교차

인기 높은 구기종목인 축구와 야 구는 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게 임을 앞두고 대표선수 선발 논란으 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우여곡 절 끝에 두 종목 모두 금메달을 따 냈다. 그러나 이후 행보는 정반대 로 흘렀다. 축구는 황의조와 손흥 민 등 금메달에 힘을 보태 선수는 물론이고 김학범 감독도 최고의 환 대를 받았다. 반면 야구는 환영받 지 못했다. 오지환·박해민을 비롯 한 병역특례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선동열 감독은 국정감사에 증인으 로 서는 등 자존심을 구기면서 자 진사퇴했다.

▲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

신태용 감독이 이끈 한국축구는 러 시아월드컵을 통해 9회 연속 및 통 산 10회 본선 무대를 밟았다. 그러 나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보여 준 경기력은 불안하기만 했다. 예상 대로 조별리그 1, 2차전 상대인 스 웨덴, 멕시코에 연거푸 패했다. 비 난이 쏟아졌다. 하지만 조별리그 마 지막 경기에서 대 이변이 일어났다. 한국은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강력 한 우승후보 독일을 상대로 2-0 승 리를 거뒀다.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독일전에서 보여준 태 극전사들의 피 끓는 투혼에 온 국민 은큰 박수를 보냈다.

5 베트남 축구 '박항서 매직'

올 한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감 독을 꼽으라면 단연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일 것이다. 그야말로 박 항서의 매직이었고. 신드롬이었다. 지난해 9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올 1월 열린 아시아축구 연맹(AFC) 23세 이하(U-23) 챔피언 십에서 준우승을 거뒀다. 이는 베트 남축구 사상 최고의 성적이다. 자카 르타-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역 대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다. '동남아시아의 월드컵'으로 불리는 아세안축구연맹(AFF) 스즈키컵에 서 10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베트남 의 축구영웅이 됐다.

6 RYU, 韓선수 첫 WS 선발

미국 메이저리그의 왼손 투수 류현 진(LA다저스)은 시즌 초반 사타구 니 근육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전열 에서 이탈했으나 8월 중순 복귀한 이후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소속팀 의 6년 연속 지구 우승에 힘을 보탰 다. 또 보스턴 레드삭스와 가진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는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하면서 한국 스포츠사 에 큰 획을 그었다. 비록 4.2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 록하고 팀이 2-4로 패하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그는 월드시리즈에 선발투수로 등판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다.

7 SK. 한국시리즈 우승 쾌거

SK 와이번스가 정규시즌에서 압도 적 1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를 한 국시리즈(KS)에서 4승 2패로 제치 고 8년 만이자 통산 4번째(2007, 2008, 2010, 2018년) KS 우승 트로 피를 들어 올렸다. 6차전 연장 13회 초에 나온 한동민의 홈런으로 승부 가 갈렸다. 한동민은 한국시리즈 최 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. 미국 출 신 트레이 힐만 감독은 외국인 감독 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 을 일군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다. 두산은 단일시즌 최다 타이인 93승 (51패)을 거두며 시즌 내내 독주했 지만, 통합우승 달성에는 실패했다.

图 전북, K리그 6번째 우승컵

K리그는 올 시즌도 전북 현대 천 하였다. 시즌 초반부터 줄곧 선두 를 지킨 전북은 10월7일 울산 현 대와 벌인 32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남은 6경기 결과에 관 계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. 승 점 86점(26승 8무 4패)은 역대 최 다승점 기록이다. 2009년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던 전북은 2011년, 2014년, 2015년, 2017년에 이어 팀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랐다. 2005년 여름부터 전북의 지휘봉 을 잡은 최강희 감독은 6번째 우승 을 끝으로 중국 무대로 자리를 옮 겼다.

g 정현, 호주오픈 4강 기염

정현이 호주오픈테니스 4강에 오르 는 기염을 토했다. 세계랭킹 58위의 정현은 1월 호주오픈 16강에서 6차 례나이 대회 정상에 섰던 세계적 강 호 노바크 조코비치(세르비아)를 세 트스코어 3-0으로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켰다. 비록 테니스 황제 로저 페 더러(스위스)와 4강에서 발바닥 물 집 통증 탓에 경기 도중 기권했으나 한국 테니스 선수 역대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을 거뒀다. 이 덕분에 국내 에서는 갑자기 테니스 열풍이 불었 다. 정현의 기량과 함께 풍부한 스토 리가 소개되면서 단박에 스타의 반 열에 올랐다.

10 박지수, WNBA 무대 진출

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의 박지수 는 올해 미국여자프로농구(WNB A) 무대에 진출했다. WNBA드래 프트에서 미네소타 링스에 2라운드 5순위(전체17순위)로 지명을 받은 직후 트레이드를 통해 라스베이거 스 에이시스에 입단한 것이다. 시범 경기를 통해 개막 로스터에 포함된 박지수는 2018시즌 WNBA 정규리 그 32경기에 출전해 평균 13분을 뛰면서 2.8점·3.3리바운드를 기록 했다. 국내선수가 WNBA 정규리그 무대에서 뛴 것은 2003년 정선민 (현 신한은행 코치)이후 박지수가 두 번째다.